

2009년 하반기의 천연 섬유 업계

- 소비자가 진품을 다시 찾게 되길 고대

2009년 상반기에는, 면사·면직물이나 모사·모직물 등 천연 섬유의 시황이 심하게 얼어붙었다. 세계 동시 불황(世界 同時 不況)을 배경으로 일본 국내 섬유 생산은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 불황에서 회복하려면, 백화점 등 일본에서 생산된 섬유 제품의 최종 판로가 되는 소매업 판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방직 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1 ~ 5월까지의 면사 생산량은 2008년 동기와 비교하면 22%가 줄어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면사 수입량도 24% 줄었다. 면직물 수입도 24% 줄어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모방 업계 동향을 일본 양모 방직회(日本 羊毛 紡績會)의 자료로 살펴보면 2009년 1 ~ 4월의 소모사(梳毛絲) 생산 누계(生産 累計)는 28% 감소되었고, 수입량도 30% 줄었다. 소모 직물 생산은 29% 감소되었고, 소모 직물 수입은 12% 줄어들고 있다.

이들 두 협회는 모두, 요 근래 회원사의 수가 줄고, 설비도 삭감되어 일본 국내에서의 모든 생산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천연 섬유의 실이나 생지의 일본 국내 수요가 크게 줄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산지의 제직업이나 니터(knitter)나 염색 공장(染色 工場)은 당장에 수주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지금에 와서 산지를 대표하는 제직업이나 니터

의 앞길이 막혀 버렸으며, 큰 방적 공장도 연이어 문을 닫았다. 시황이 이렇게 나쁜 요인은 분명하다. 세계 동시 불황으로 의류 제품의 점두 판매가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생산된 텍스타일로 만든 제품의 주요 판로인 백화점의 의류 제품 판매액이 24개월 연속으로 2008년 판매 실적을 밑돌고 있다. 산지 기업 중에 “백화점이 이런 상태에서는, 산지에 일감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곳도 있다.

퍼스트 패션(first fashion) 대표들의 저가격 전략에 따른 심한 경쟁도, 일본 국내 섬유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2차 제품 수입량을 보면, 면(綿) 제품이 2008년 동기와 비교하면 1.2% 증가하고 있다. 모(毛) 제품도 실이나 생지를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조금 줄고 있다. 저가격 경쟁이 제품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일본 국내 생산에 심대한 타격(damage)을 입히고 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하여도, 관계자들 사이에 낙관론을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 다만 “소비자 옷장에는 싸구려 상품이 가득 넘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경기가 풀리면 진품(眞品)을 찾는 경향이 부활할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판매가 잘 안되어 고심하고 있는 어패럴이나 유통이 이제까지의 흐름을 반성하여 다시 좋은 소재를 축으로 한 상품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움직임도 조금 보였다. 이에 호응하듯이, 산지에서도 일부 유력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여 생산 제품을 고도화(高度化)하고 있다.

일본의 천연 섬유 시황은 경기가 회복되고 백화점 등의 판매대에서 다시 잘 팔리게 되어야 나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생산된 텍스타일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어패럴이나 유통 분야의 인식이 중요하다. 업

체 관계자 중에는 “아무리 백화점에 진열된 유명 브랜드일지라도 중국제 생지를 사용하고 있으면 모처럼의 유명 브랜드에 대하여 실망한다. 그것이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